장성군 '록 음악 성지' 될까? '성장록페' 관심 고조

19일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 와이비(YB), 카디, 하랑, 이글이글 출연

장성군이 오는 19일 오후 6시 장성군청 옆 특설무대에서 '성장장성 록 페스티벌(이하 성장록페)'을 연다.

'성장록페'는 장성군이 작정하고 제대로 기획한 최초의 '록 페스티벌'이다. 이전에도 '로커'들이 무대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성장록페'처럼 모든 출연진이 '록 밴드'인 적은 없었다.

공연을 이끌어갈 밴드는 '와이비(YB)'다. 1994년 데뷔앨범 발매 이래 30년 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록의 대들보'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열정을 담은 '오 필승 코리아'를, 2011년에는 '흰수염고래'를 발매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전했다. 올해 2월 발매한 앨범 '오디세이'에선 밴드 최초로 헤비메탈 장르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슈퍼밴드2' 3위에 빛나는 '카디(KARDI)'의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보컬, 기타, 베이스, 거문고의 4인조로 구성된 개성 넘치는 밴드다. 밴드 이름인 '카디(KARDI)'는 심장을 뜻하는 접두사 카디(cardi)에서 착안했다.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 가슴 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

'성장록페'가 뜻깊은 이유는 또 있다. 장성 청소년들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하랑' 밴드팀과 장성고등학교 밴드 '이글이글'이 와이비(YB), 카디와 같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록페'를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의 꿈을 따스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공연 당일 비가 내릴 경우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팀(061-390-8476)으로 하면 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강진의 4월을 수놓는 희망의 선율, 배성연 독주회

24일 강진아트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연

강진군은 피아니스트 배성연 독주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는 24일 오후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발달장애 2급 장애를 딛고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배성연은 순수함을 담아내는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년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2024 함께, 봄'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강진아트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날 주간에 맞춰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ESG 가치경영의 실현 및 다양성, 포용성 증진 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이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과 브람스의 명작을 배성연의 깊은 감성과 탁월한 연주력으로 만나볼 수 있다. 두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위로와 감동, 인간의 강인한 정신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베토벤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는 그가 운명과 맞서 싸우며 탄생시킨 음악적 깊이를 느끼게 하고, 브람스의 '인터메쪼 Op.118 1~5번'을 통해 서정적이고도 환상적인 음악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이 공연의 콘서트 가이드 성음아트센터 정은현 관장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한 음악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여정을 담아낸 무대"라며 "음악의 진정성으로 경계를 넘는 소중한 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연과 관련된 정보는 강진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ACC 장애 경계 허물다…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展

무장애·장애·참여·상호작용 연구 작가 5인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오는 17일부터 연다.

ACC는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를 17일부터 6월29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특히 '배리어 프리(무장애)'를 보조수단이나 장치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구축해 더욱 의미 있다.

전시장에는 어린이와 시각장애인 참여자를 위해 벽면에 촉감바를 설치해 전시의 동선을 안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기관을 촉감타일로 제작했다.

전시 주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김원영 작가의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에서 발췌했다.

전시는 무장애·장애·참여·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 온 국내외 5인의 작가들의 신작과 대표 작품으로 구성돼있다.

엄정순 작가는 '코 없는 코끼리 no.2'와 드로잉 작품을 통해 600여 년 전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의 이주 서사가 담고 있는 혐오, 분리,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눈과 귀의 근본적인 관계와 언어에 관심을 두고 신작 '궤도(토토포노로지 #4)'를 통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대응, 지각적 다양성을 부각한다.

송예슬 작가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 공기조각'과 신작 '아슬아슬'을 선보여 시각 중심의 기존 예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비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아야 모모세는 몸의 문제를 탐구하며 의사소통 불균형, 타인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격차를 탐구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 '소셜 댄스'는 한국콘텐츠접근성 연구센터와 협력해 시각언어인 수어를 음성해설로 구현했다.

끝으로 김원영·손나예·여혜진·이지양·하은빈 작가의 작품 '안녕히 엉키기'는 워크숍을 전시로 확장한 작품이다.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특성의 몸과 마음을 가진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 움직임, 글쓰기,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은 물론 모든 관람객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문화접근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 차 돌입

상인 주도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시장 모델 구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 2년 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인시장은 지난해부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년 차인 올해에는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고객 편의시설인 '대인 웰컴 센터' 활성화 ▲야시장 전용 상품 개발 ▲상인회 주도의 야시장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상인회가 직접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시장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인 야(夜)시장은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인 웰컴센터'를 새롭게 단장해 운영하며, 안내·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참여형 예술프로그램도 진행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연인, 친구 모임 등 다양한 계층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은 올해도 운영,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골라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인한상'을 통해 한 상에 구성된 특색 있는 메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더욱 풍성한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전혜정 기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오는 18일 '국립국악원 – 경셩유행가' 공연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18일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년 봄, 새로운 공연의 시작으로 영광군민을 매료시킬 국립국악원의 '경셩유행가'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5 〈국악을 국민속으로〉 지원사업'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로 일제강점기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당대 유행가를 만날 수 있다.

잔잔하면서 고졸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서도소리, 소리를 받쳐주는 가야금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뛰어난 기량의 연주력이 돋보이는 가야금 병창, 당대 전설로 불리던 이화중선, 임방울, 박녹주, 김초향 등 판소리계 스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악기와 서양 악기의 반주가 어우러져 큰 인기를 끌었던 신민요까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표현하며 영광군민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광군이 후원하며, 관람료는 10,000원(영광군민-3,000원, 중·고등학생 이하-1,000원), 입장권은 오는 10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누리집〉안전생활〉영광문화예술의전당〉공연/전시일정 또는 네이버밴드(http://band.us/#!/band/5015660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